

광주광역시 제3섹터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일 자 2018년 10월 2일 (화) 14:00
장 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

13:30~14:00	개 회	· 등록
14:00~14:30	발 제	·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사례와 확장된 제안 -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14:30~15:00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 박상하 (고구려대학 교수)
15:00~15:50	토 론	· 좌장 -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 지정토론 - 김경혜 (광주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팀장) - 장은미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 임 걸 (광주광역시자활센터 사무국장) - 김오숙 (광주광역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
15:50~16:00	질의 및 응답	· 플러어 토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광주광역시 제3섹터」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일 시	구 분	내 용
13:30~14:00	개회	등록
14:00~14:30	발제	-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사례와 확장된 제안 : 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박사)
14:30~15:00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 박상하(고구려대학 교수)
15:00~15:50	토론	- 좌 장 : 정무창(광주광역시의원) - 지정토론 : 김경혜(광주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팀장) 장은미(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임걸(광주광역시자활센터 사무국장) 김오숙(광주광역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
15:50~16:00	질의/ 응답	플로어토론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사례와 확장된 제안

발제자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 사례와 확장된 제안

2018.10.02(화)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위원

Chapter 1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일자리 논의와 함께 성장한 우리의 사회적경제

01

02

03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논의로부터

▶ “한국의 사회적기업논의는 **취약계층의 빈곤과 실업**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을 통해 **외연적 성장**을 이루었다.”
(김혜원[2009]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 사회적기업관련예산의 **과반(56.4%, 2014 예산기준)이 일자리창출(일반, 전문인력)에 활용(약879억)**
(고용노동부[2015], 고용영향평가 관련 사회적기업과 행정자료)

→ **현재에도 매우 중요**

협동조합 또한 일자리 창출기대

▶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
(협동조합기본법안 대안. 2011.12.29. 기재위원장)

▶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1)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2)내수활성화, 3)일자리창출, 4)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2013],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사회적경제의 순기능 첫째)
“**고용창출·고용안정·유휴인력활용** 등에 기여”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7]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광주시회적경제 포럼 1

고용·노동분야 연구영역과 일자리의 양과 질

01

02

03

고용·노동 연구영역의 구분(발표자)

고용정책 노동시장	일자리관련 논의 (예: 고용의 양과 질)
	인력관련 논의 (예: 직업훈련)
	일자리-인력 간 연계 (예: 고용서비스)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고용·노동분야 주요 주체 간 관계 및 합의체계
고용관련 안전망	실업이나 일자리재해 등 일 관련 위험에 대응

연구영역은 **상호 중첩·연결**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논의

고용의 양	일자리의 수
고용의 질: 예시 (방하남 외[2007] 고용의 질)	객관적 고용의 질(객관지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산재발생률, 훈련시간, 여성·고령자·취약계층비율, 노조 조직률 등
	주관적 고용의 질(근로자 주관) 자율성·권한 인식, 고용안정성 인식, 발전 인식, 급여 만족도, 인간관계 인식 등

**고용의 양과 질, 객관적·주관적
질을 모두 이해필요**

광주시회적경제 포럼 2

사회적경제조직과 근로자 현황 (사업보고서등[사], 실태조사[협], 활성화방안[마], 보도자료[자])

01
02
03

- ▶ 개별적으로 개별 기준에 의해 수집한 자료이기에 정확성이나 신뢰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조직형태 간 절대적 비교는 무리가 있음

사회적 기업 (2016, 사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사회적기업 수(2017년 4월 조사): 1,653개소 (동년 12월 유지(행정자료)는 1,713개소) • 기업 당 유급근로자 수: 23.7명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협동조합 (2016,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중인 협동조합(2016년 12월 기준): 5,100개소 (설립인가는 10,615개소) • 협동조합 당 피고용인 수: 4.3명 → 피고용인: 순수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자활기업 (2017,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자활기업 수(2017년 12월 기준): 1,092개소 • 기업 당 고용인원: 10.1명 → 고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현재 미확인
마을기업 (2016,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마을기업 수(2016년 기준): 1,446개소 • 기업 당 고용인원: 11.1명 → 고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현재 미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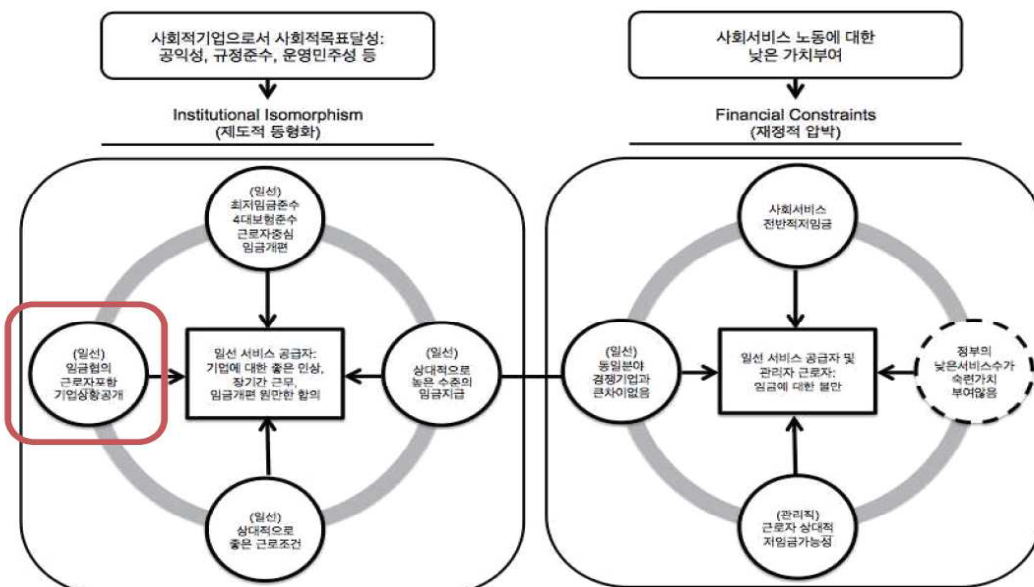
- ▶ (참고)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12월 임금근로자 **19,635천 명**/전국사업체조사, 2016년 사업체 중 공장, 지사(점), 영업소제외[단독사업체 & 본사, 본점 등] **3,762천 개소**

광주사회적경제 포럼 3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사회서비스 분야, 임금관련, 황덕순 외[2015])

01
02
03

- ▶ 참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회적기업(3.3%, 2016), (사회적기업실태조사)



광주사회적경제 포럼 4

Chapter 2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례

외국의 사례 - 고령화와 이주노동에 대응

01

02

03

▶▶ 고령화에 대응 -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 1986년 ‘중고령고용 복지사업단’ 으로 출발, 스스로를 ‘노동자협동조합’ 으로 규정. 2000년 돌봄 사회서비스사업 진출
- “인간다운 노동, 좋은 일(자리), 사람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업체, 새로운 복지사회 건설, 완전고용사회, 지역순환형 커뮤니티 건설”



▶▶ 이주노동에 대응 - 미국노동자협동조합

- 비영리단체, 노동조합이 노협 조직
- 2000년 이후 폭발적 증가, 청소·음식점 및 카페·기술·식품생산 및 가공
- 이민자 노협 증가(40+)
- CHCA(1985) : 12명의 가정내돌봄노동자로 시작, 현재 2,000명 이상 고용. 비영리단체 설립해 실업여성 교육,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외국의 사례 - 플랫폼노동에 대응

01
02
03

- 미국 : 노동인구 중 약 35%(2016년 기준)인 5500만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 유럽 : 영국은 16~75세 생산가능인구의 10% 이상인 490만 명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독일은 14%,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2%가 플랫폼 노동 경험(영국 하트퍼드 서대 경영대학원, 2016년 1월)
- 한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년 보고서, 국내 O2O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1000억 원에서 2020년 8조7000억 원으로 급증 전망



잉여의 노동자 분배(낮은 수수료), 공동소유기업의 질 높은 서비스 스스로 만드는 사회보장



우리의 사례 - 저출산과 마을돌봄: 육아플랫폼 마을아이

01
02
03

공동육아센터 마을아이? 용무 차를 갈아타고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자 또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놀아 관계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옆집 언니가 되어 줄게~”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하게 갈 데가 없으시죠?
그 마음 다 알아주는 마을아이로 오세요.

오전 10시~오후 2시
운영시간 : 월~금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 8월 현월은 휴관
공동육아센터 마을아이 | 광산구 월곡반월로 16번길 25-5 (월곡동 593-4)

이용 대상

- 아이와 단 둘이 있어서 외롭고 힘든 분
- 아이와 노는 법을 알고 싶은 분
- 아이에게 좋은 부모어린이고 싶은 분
- 육아에 대해 걱정을 하게 나누고 싶은 분
- 아이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분

이곳에서 하는 활동

- 실내놀이, 바깥놀이
- 좋은 부모되기 교육
- 아이들에게 좋은 놀잇감 만들기
- 육아정보, 육아용품 나누기
- 마음 편하게 차 한 잔 하기

문의, 전화수 010. 2834. 2608

5월 맛보기 놀이 23일 신나는 열기구 놀이
30일 이유식을 부탁해~

주최 광주광역시 2017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주관 광주아카데미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옆집 언니가 되어 줄게~”

아이를 데리고 마음 편하게 갈 데가 없으시죠?
그 마음 다 알아주는 마을아이로 오세요.

문의, 전화수 010. 2834. 2608

월간인나의 9월살이

요일	1	2	3	4	5
시간	10:30-12:00	10:00-12:00	10:30-12:00	10:00-12:00	10:30-12:00
이름	우리아너노리	아이들 간에는 좋은 친구	이웃에서 놀자	그대들의 수작	9월의 놀이
내용	신중한 부모양육에 그날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날에 만났어요 (전문가와의 만남)	한번씩 배우기 이웃사랑 만들기	이웃에서 놀기 해 볼수있어요. 이웃사랑을 할수있어요	아이들의 놀이를 돌아볼 수있어요	9월의 놀이
10일	10일	이유나	다들 놀	10일	
	6회 2만원				

운영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 2시
(8월 현월은 휴관, 9월 1일부터 운영)

- 아이를 동반하는 언니들이 있어요~
-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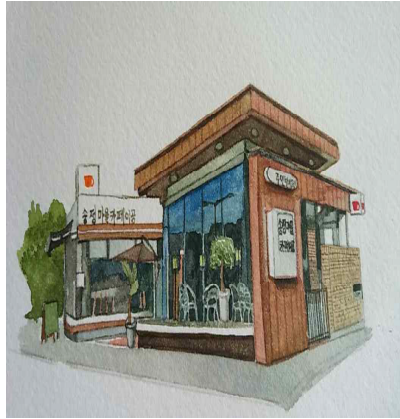
공동육아센터 마을아이 | 광산구 월곡반월로 16번길 25-5 (월곡동 593-4) 주관 광주아카데미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우리의 사례 - 청년과 마을: 청년공동체 이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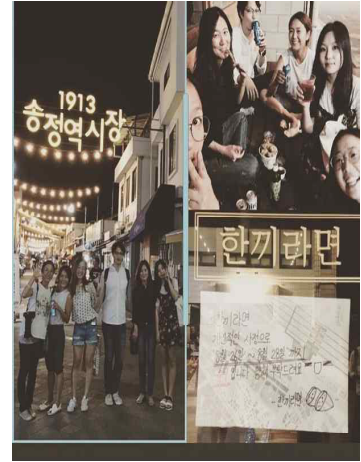
01
02
03

공주 유택 빈 집 활용



마을 플랫폼 마을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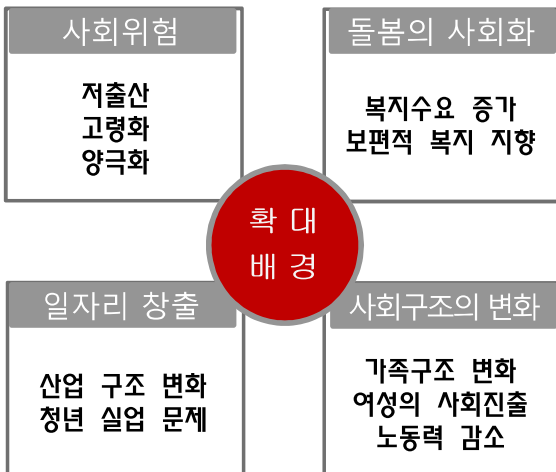
도시 재생 마을 문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확대 배경과 특성

01
02
03

»» 사회서비스 확대 배경



»» 사회서비스의 특성

- 1 높은 노동집약성 / 비표준성 / 경험제
- 2 공간적 / 정서적 근접 서비스
- 3 공공재로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문제
- 4 노동생산성 증대의 어려움
- 5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01
02
03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사)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이용자	(명)	527,744	605,160	583,263
보조금(국고+지방비)	(억원)	10,897	13,203	14,888
제공기관	(개소)	9,836	11,208	12,437
제공인력	(명)	164,737	180,915	194,201

광주사회적경제 포럼 11

사회서비스 단가에 따른 최저임금 비교표

01
02
03

년도	수가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여합계	5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금	인건비성 비용 합계	시간당 관리비 금액	법정인건비
										비율/매출액 지침상75%
13년	8,550(동결)	4,860 △280(6.1%)	970	279	6,109	539	509	7,157	1,393	71.5%
										6,412
14년	8,550(동결)	5,210 △350(7.2%)	1,040	299	6,549	578	546	7,673	877	76.6%
										6,412
15년	8,810 △260(3%)	5,580 △370(7.1%)	1,116	321	7,017	620	585	8,222	588	79.65%
										6,607
16년	9,000 △190(2.2%)	6,030 △450(8.1%)	1,206	347	7,583	669	632	8,884	116	84.26%
										6,750
17년	9,240 △240(2.5%)	6,470 △440(7.4%)	1,294	372	8,136	718	678	9,532	-292	88.05%
										6,930
18년	10,760 △1,520(16.5%)	7,530 △1,060(16.4%)	1506	433	9,469	835	789	11,093	-333	88%
										8,070
19년(가)	12,960 ▲2,200(20.45%)	8,350 △820(10.89%)	1,670	480	10,500	963	880	12,343	617	81.02%
										9720

자료출처: 사회적경제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19.9.17

광주사회적경제 포럼 12

한국의 사례 - 새롭게 생겨나는 모델들

01
02
03

기업명	개요	의의
우진교통	2005년 부도 버스회사를 인수 현장분회, 위원회를 통해 조합원이 경영 참여, 자주관리학교를 통해 역량 강화	-청주지역 버스노동자들의 노 동권 개선을 주도 -공제기금 등으로 안전망 강화
해피브릿지	1999년 설립, 2013년 노협으로 전환 평의회'위원회를 통해 조합원이 경영참 여	-청년, 노협 인큐베이팅과 지 원의 선도 역할 -공정프랜차이즈를 선도
한국가사노동자협회	2004년 실업자사업단에서 2012년 협회 로 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12개 지부로 구성	-중고령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서비스 질 제고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법적 보 호 주도
도우누리	2006년 자활사업단에서 시작,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투명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수탁 등으로 지역기반 모델 검증
대리운전,셔틀버스	각각 2012, 2017년에 설립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교육, 일자리정보 제공 등 플랫폼 시작 혹은 준비 중	-운수노동자의 간접/불안정고 용에 대응 -지자체의 역할 중요

사회적경제분야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019.9.17

Chapter 3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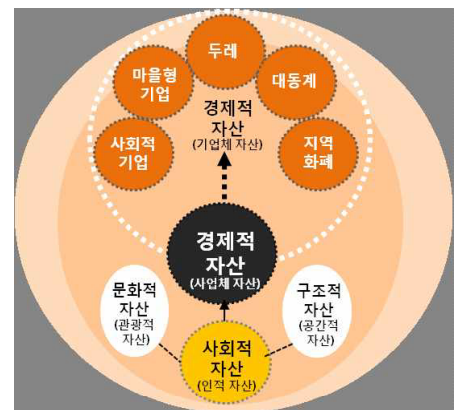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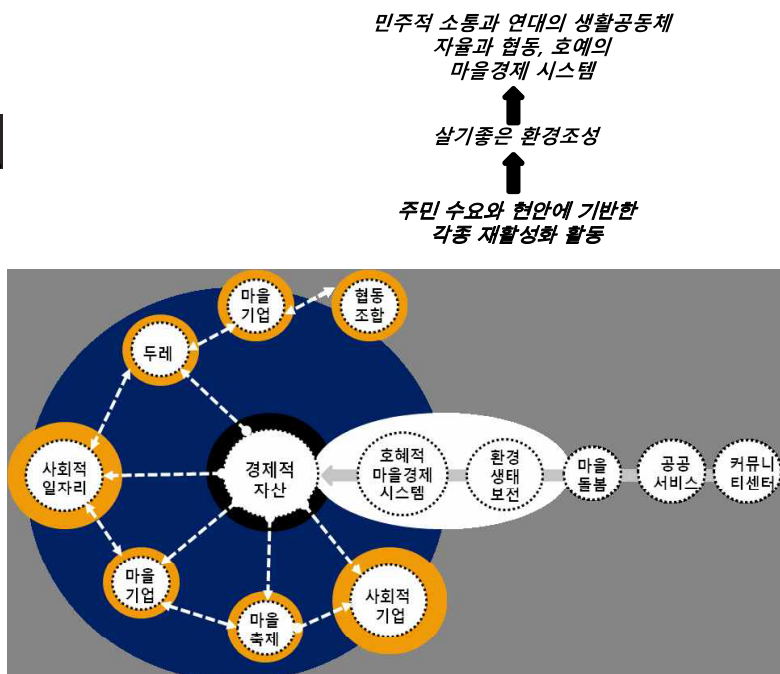
01
02
03

- ▶ 사회적경제조직은 부정적·긍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부정적 이미지로는 **영세·소규모, 열악한 경제성과, 취약계층 중심, 저임금 일자리** 등이라 판단됨.
- ▶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 인식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편향된 인식: 1) **여성, 장년, 장애인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식 되어져야 할 부분이며, 2) 전체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지만 **보다 평등한 내부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3) 상당수 기업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일상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4) 이에 **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즉 모든 측면에서 다른 일자리에 비해 뛰어나다 할 수 없으나,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단정짓기에는 긍정적 측면이 다수 발견됨.**
- ▶ 그럼에도 사회적경제조직 및 정부는 현재 일자리 질 관련 취약 영역을 개선하고 우수한 영역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예를 들어 1) 사회적경제조직은 **일터혁신**을 통해 **민주협력적 기업문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향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2)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기부나 자원봉사 등의 추가적 자원 확보**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3)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민간위탁 단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구현의 토대를 조성할 필요(황덕순 외(2015) 일부 참고)

광주시회적경제 포럼 15

지역순환과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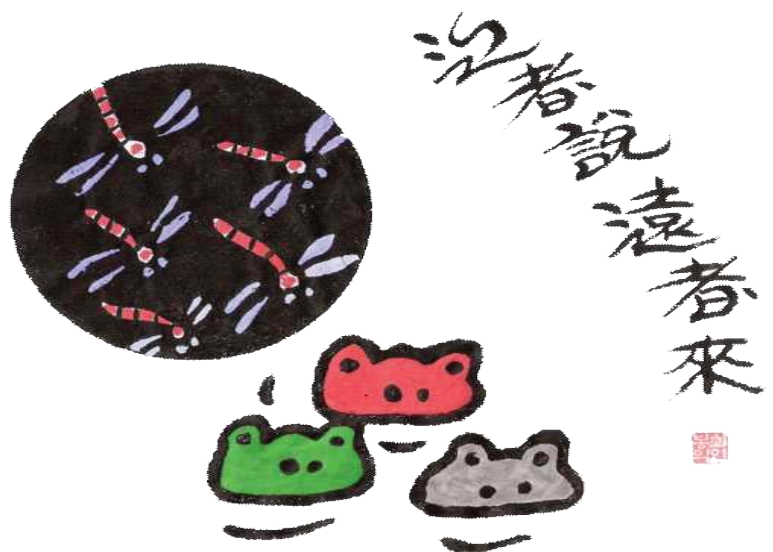
01
02
03



광주시회적경제 포럼 16

다양한 지역자원과 수요를 결합 => 공동체 기반의 생활방식 => 지역 활성화

순환자원연계	지역인적자원 + 재생자원 + 주민수요자원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영역발굴 + 비즈니스 모델 찾기
다양성과 개방성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변화와 수용, 유입과 조화
선택지 확장, 실험적 도전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실험
사회적 경제 지원 인프라	사회적경제 기금확보,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발제자

박상하

고구려대학 교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1

박 상 하 (고구려대 교수)

목 차

2

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분석
2.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의 convergence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조직전환가능성
4. 돌봄분야 사회적협동조합
5.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운영사례

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분석

3

- 2017.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 서비스 필요비율(A)과 실제 서비스이용율(B)과의 편차(A-B)가 크게 나타나 사회서비스 잠재적 수요 확인
- 아동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었는데 이는 정부의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지원정책으로 접근성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임
 - 적극적 보육정책의 영향으로 개별 가정의 서비스 필요비율과 현재 이용비율의 편차가 좁혀질 수 있었던 것
- 편차가 적은 문화서비스는 이용의향이 있는 집단이 개별적으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가구)

서비스유형	서비스필요비율(A)				현재서비스이용비율(B)				필요한데 이용하지않는비율(A-B)			
	미혼	자녀 양육	성인 자녀	노인	미혼	자녀 양육	성인 자녀	노인	미혼	자녀 양육	성인 자녀	노인
상담서비스	31.6	30.7	33.0	24.6	4.2	6.4	4.7	3.5	27.3	24.3	28.3	21.1
재활서비스	21.8	19.7	25.1	38.6	1.1	2.7	3.1	5.5	20.7	17.0	22.0	33.0
성인돌봄서비스	24.6	23.5	30.7	59.1	2.3	3.0	4.0	12.0	22.3	20.4	26.7	47.1
아동돌봄서비스	13.3	61.9	16.1	6.5	1.1	27.7	2.4	0.0	12.2	34.2	13.6	6.5
보건의료건강 관리서비스	49.1	44.3	51.1	66.5	3.3	6.1	9.4	18.5	45.8	38.2	41.7	48.0
교육정보제공서비스	40.8	53.3	37.8	5.6	2.9	6.8	5.4	0.0	37.9	46.4	32.3	5.6
고용취업서비스	48.9	39.5	43.0	19.5	4.3	4.4	6.7	4.9	44.6	35.1	36.3	14.6
주거서비스	41.0	27.3	24.3	18.7	1.9	4.0	2.4	3.1	39.1	23.2	21.9	15.6
문화서비스	47.9	44.3	43.0	23.6	4.8	6.9	8.1	7.1	43.1	37.4	34.9	16.5
환경서비스	44.2	31.5	30.9	21.6	2.2	4.3	3.4	4.1	42.1	27.2	27.6	17.6
가구수	2,616											

자료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17.12, 보건복지부

○ 전체사업체 3,000개소 중 64.4%가 개인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회사 이외 법인 12.8%, 비법인단체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조직형태현황>

(단위 : %, 개소)

구분	전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사업체	
		소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인사업체	64.4	61.6	48.4	64.3	67.7	
회사법인	9.2	2.9	6.7	2.2	16.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	3.7	2.7	3.9	2.2	
	12.8	18.4	26.8	16.7	6.2	
회 사 이 외법인	사회복지법인	28.8	32.5	43.7	28.9	16.2
	종교법인	3.8	4.7	4.0	5.0	0.7
	학교법인	0.6	0.5	0.5	0.5	1.2
	의료법인	0.5	0.5	-	0.6	0.5
	특수법인	0.4	0.1	0.3	0.0	1.4
	기타 비영리법인	12.7	9.2	2.8	11.2	25.2
모름/무응답	53.1	52.6	48.8	53.8	54.9	
비법인단체	10.6	13.3	15.4	12.9	7.3	
합계	100.0 (3,000)	100.0 (1,624)	100.0 (270)	100.0 (1,354)	100.0 (1,376)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형태가 전체의 약 8.0%이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미흡

<사회서비스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단위 : %, 개소)

구분	전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사업체
		소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적기업	8.0	7.1	2.8	7.9	9.2
협동조합	0.4	0.2	-	0.3	0.5
마을기업	-	-	-	-	-
해당없음	91.6	92.7	97.2	91.8	90.4
합계	100.0 (3,000)	100.0 (1,624)	100.0 (270)	100.0 (1,354)	100.0 (1,376)

주) 합계의 괄호()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자료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17.12, 보건복지부

○ 사업체의 30.6%는 성장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1.2%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였음

<사회서비스공급기관의 성장단계별 현황>

(단위 : %, 개소)

구분	전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사업체
		소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창업기	4.8	2.7	1.8	2.9	7.3
초기성장기	14.2	19.9	22.8	19.3	7.5
성장기	30.6	30.2	25.7	31.1	31.1
성숙기	31.2	24.2	30.5	22.9	39.5
쇠퇴기	19.2	23.0	19.2	23.8	14.6
합계	100.0 (3,000)	100.0 (1,624)	100.0 (270)	100.0 (1,354)	100.0 (1,376)

○ 전체 평균 취업인원 13.3명 중 관리직은 0.7명 국가자격증 1급 보유자 0.4명 기타 서비스 제공인력 0.1명순이며 관리직이 있는 사업체는 1,395개소였음

<사회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 현황>

구분	응답업체 (개소)	평균인원(명)		고용형태(%)		성별(%)		
		응답평균	전체평균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전체	3,000	13.3	13.3	44.6	55.4	44.6	55.4	
관리직	1,395	10.4	0.7	53.4	46.6	53.4	46.6	
전문직 (서비스 제공인 력)	국가1급자격증소지자	961	10.4	0.4	55.1	44.9	55.1	44.9
	국가2급자격소지자	448	10.3	0.1	64.0	36.0	64.0	36.0
	민간자격보유자	380	9.0	0.1	60.7	39.3	60.7	39.3
	기타제공인력	659	7.2	0.1	55.7	44.3	55.7	44.3
사무직	597	5.8	0.1	51.7	48.3	51.7	48.3	
단순직	1,278	6.3	0.4	58.3	41.7	58.3	41.7	
그 외 근로자	3,000	11.5	11.5	42.8	57.2	42.8	57.2	

2.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의 convergence

9

□ 등장배경 공유 : 복지국가 위기 3가지 대응론으로 등장(70년대이후 재편과정)

자유주의 시장>국가	세계대공황	복지국가, 국가개입주의 J.M. Keynes 이론 시장<국가	오일쇼크,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신자유주의 시장>국가 (복지국가 위기 대응론 등장)
	1929년		1970년대	
	시장실패		정부실패	

10

○ 사회투자론

- 영국 노동당의 정책노선으로 기든스의 제3의길에서 처음사용
- 제1길 사회민주주의와 제2길 자유주의를 통합한 것으로 모든개인의 평등가치, 기회의평등, 책임, 공동체라는 4가지요소로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중간형태
- 일할 능력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일할수 없는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사회투자국가 지향

○ 근로연계복지(workfare)

- 1960년 닉슨정부때 설계한 것으로 복지급여에 의존한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는 정책으로 유럽에서는 저열한 복지모델로 평가. 나라마다 해석과 적용다름
- 강제적이며 구빈법사상에 기초. 국가의무 외면. 노동시장 취업 우선주의정책

○ 복지다원주의

-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 영리와 비영리부문 역할확대로 복지총량 확충
-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권한이양, 국가복지의 시장화 민영화로 경제논리도입, 국가의 재정보조자와 규제자 역할(위탁 계약시스템 정착)

□ 사회서비스의 법적 개념정의 유사성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4.7)상 사회서비스의 범위(시행령 제3조)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전문개정 2010.12.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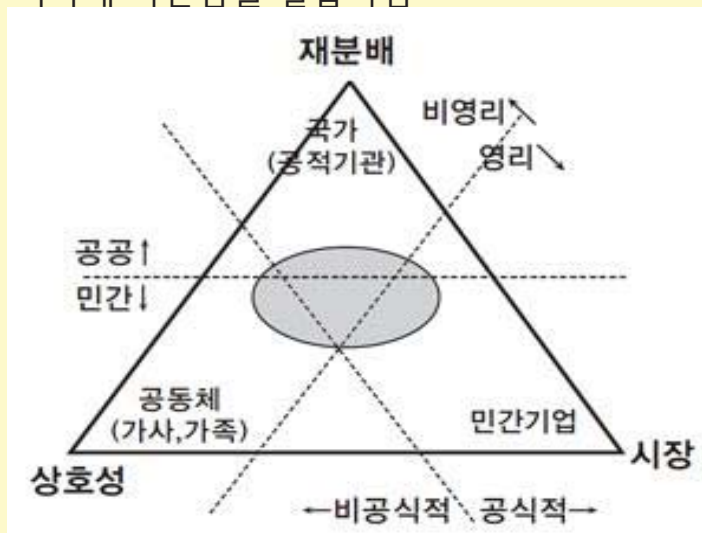
□ 이론적 배경

○ 공공재로서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가 공공재인지는 서비스공급 및 재정부담의 정부역할에 따라 달라짐
-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서비스의 최적공급을 위해 정부개입
-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지님
- 공공재는 생산에 드는 비용부담은 꺼리지만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은 무임승차자(free-rider)문제발생. 가격책정이 어려움
- 사회서비스나 정책은 대상 선정기준이 정해지고 법적 제도화로 비용부담이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들이 수혜대상이 되기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성을 지님

○ 복지혼합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 칼 폴라니의 실질경제개념 : 사회적경제는 복지혼합, 다원적경제, 혼합경제라고 지칭하며 재분배(정부), 교환(시장), 상호성(공동체)이라는 3가지 매개체로 파악
- 스웨덴의 pestoff(1998)는 복지삼각모델 정교화시켜 유럽의 제3섹터강화론이 시민사회의 거시적 맥락에 기반함을 결합시킴



○ 복지혼합 역할분담론

- 복지공급 주체들간 역할분담으로 정부와 비영리부문간 4가지 모형 제시 (Gidron, Kramer & Salamon 1992)
- 정부주도모형은 재원(세금)과 서비스공급을 정부가 담당(북유럽국가)
- 비영리주도(NPO)모형은 재원과 서비스공급 모두 비영리가 담당(미국)
- 이종모형은 정부와 비영리가 재정 및 서비스공급에 모두 관여
- 협조모형은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제3섹터가 서비스공급을 맡는 모형으로 대리인모형과 파트너십모형으로 세분화됨(비영리가 재량권이 없으면 대리인으로 주종관계, 파트너십은 협력관계와 자율성이 존재함)

구분	역할분담 모형			
	정부주도	이종모형	협조모형	비영리주도
재정부담	정부	정부/비영리	정부	비영리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조직전환가능성

□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발표(2017.10.18)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 한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진입장벽 해소)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지역복지) 지역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경쟁력제고)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서비스표준화 등 추진으로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병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이러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협력 저조

□ 사회서비스분야 조직전환대상

- 복지공공성과 책임성강화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 고용흡수력과 조직형태를 유지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급기관
- 조직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
-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담보한 기업가정신으로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 돌봄분야 민간개인사업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4. 돌봄분야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법인 필수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 사회적 기업	광역지자체 조례	광역단체장 지정	법인 필수	
마을 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선정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시도 신고(영리) 기획재정부 인가(비영리)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자활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8년)	구청장 지정 (복지정책과)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형태 필수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항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5.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운영사례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한국)

- 2008년 자활공동체로 출발한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며, 직원 스스로가 출자하여 만든 전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협약체결(11.1 운영)

○ 조직표



- 서울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중량요양원의 위탁운영을 맡아 흑자로 전환시킴
- 원장(민동세 현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자기 봉급을 절반으로 깎는 등 관리자의 임금을 조정했지만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170만원 선으로 서울에서 최고 수준(2015년 중앙매거진)
- 도우누리는 2008년 광진주민연대 부설로 설립된 늘푸른돌봄 센터의 후신으로 가사간병, 노인,산모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임

숫자로 보는 도우누리

- 1 ·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첫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1 · 국공립 시설을 처음 위탁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 64 · 이사진 중 직원의 비율
- 73 · 조합원 중 직원의 비율
- 258 · 조합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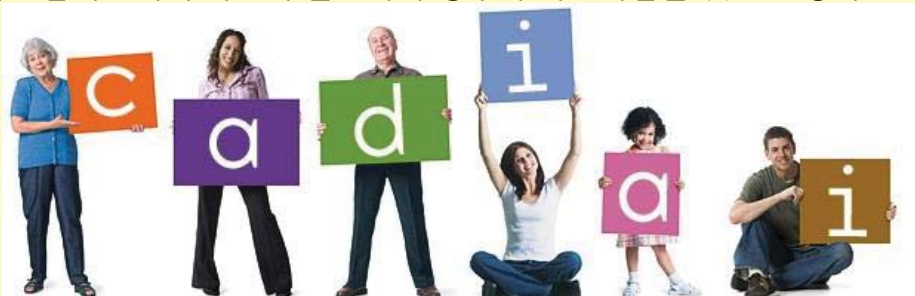
도우누리의 사회적기업 마인드

돌봄 서비스는 교육 같은 공공재
돌봄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 더
수요자 중심 요양 서비스 앞장설 것

□ CADIAI (이탈리아)

CADIAI
COOPERATIVA
SOCIALE

- 카디아아이(CADIAI)는 Cooperative(협동), Assistenza(돌봄), Domiciliare(방문), Infermi(환자), Anziani(노인), Infanzia(어린이) 6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임
- 1974년 설립된 카디아아이는 2014년 말 기준 직원 1471명, 총매출액 약 570억원에 이르는 협동조합의 선두주자로서 볼로냐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되는 대표사례



- 카디아이(CADIAI)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볼로냐 지역 외에도 각 지역의 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콜롬비아의 협동조합과 국제 프로젝트도 운영

-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는 건축노동자협동조합 치페아(CIPEA)가 보육시설을 짓고 카디아이는 운영을 맡고, 급식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CAMST)는 급식을 제공하는 구조로 볼로냐 市가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협동조합들이 일정기간 운영한 후 소유권은 市로 이전되는 협동조합간 협력프로그램임



CAMST
LA RISTORAZIONE ITALIANA

CADIAI
COOPERATIVA SOCIALE

CIPEA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미래

박상하 (고구려대 교수)

얼마 전 토론회가 끝나고 주부로 보이는 몇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간병인들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할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업내용과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눈빛이었다.

이런 현상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모두가 한번쯤 겪었던 문제였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자.

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양자 간 개념적 구분이 불명확한데서 발생한다. 현행 법률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한 반면,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처음부터 국제연맹(ICA)이 추구하는 비영리성과는 관계없이 상법상 회사의 일종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을 결사체가 아니라 사업체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게 하면서 사업내용을 제한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본래 비영리 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일반 협동조합을 무조건 사업조직으로 파악하고 영리법인으로 인식한데서 오는 혼란일 것이다.

여기서는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싶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본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소비자, 노동자, 금융, 농업분야에서 가혹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은 협동조합운동이 공동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하게 한 것이었다. 그 어려운 과제들은 바로 공익적 영역으로 노인 돌봄이나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들이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단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이탈리아가 선도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적협동조합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우리 기본법에도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의 권익증진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40%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의 인가사항이 되었다.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해부족과 참여자의 아이템 빈곤, 자본조달의 삼중고에 막혀 우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가정주부와 같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간병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협동과 연대의 정신만 있다면 접근성과 편리성은 행정의 몫이 되어야 한다.

보조금 사업도 아닌 것을 중앙정부가 인가할 사항은 더욱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고 아이템발굴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미래가 매력적이지만 불안한 또 다른 요인은 사업범위를 법으로 규정만하고 실행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40%이상 하고 싶어도 위탁사업을 받아내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기존 사업 분야에 대한 진입과 퇴출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더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엄연히 비영리법인이다.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돌봄 영역이나 취약계층 일자리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진

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요하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믿음과 신뢰는 지역 사회를 밝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2016.10.10. 나주신문 오피니언 칼럼

지정토론

토론자

장은미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장은미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과 일자리 사업 (온종일돌봄 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아이키우기 친화적 환경 만들기)

1.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온종일돌봄)

○ 방과후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 방과후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의 비율 25%(아동학대 실태 조사 보고서) 284만 초등학생 중 71만명 해당(전국)
 - ▶ 초등돌봄교실 23.8만명
 - ▶ 지역아동센터 11만명
 - ▶ 청소년방과후돌봄아카데미 0.6만명총 33 -35만명 정도만 소화
- 우리사회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오히려 취학 전 영육아보다도 더 방치 되어 있는 상황임(지역 내 방과후 아동 인프라 수용력 미진)

출처: 온종일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재정립토론회 자료집(전지협)

○ 온종일 돌봄 필요성

- 미취학 아동중심의 돌봄공급- 자녀 돌봄의 욕구학대
- 취학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공백은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 이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필요

○ 광주광역시 돌봄체계 현황(2017년 기준)

- ▶ 교육부: 방과후교실, 초등돌봄교실(286개실)
-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309개소), 다함께돌봄사업(1개소)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6개소),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 (서구, 남구, 광산구 각 1개소 /담당자 1명 예산 4천만원/대상: 만18세 미만)

▶ 기타 돌봄 : 작은도서관(400여개), 공동체육아, 품앗이육아, 동네육아, 마을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마을에서의 공동육아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제도적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요구되어짐.

○ **광주광역시 돌봄체계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초등돌봄교실 ('17)	지역아동센터('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6)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근거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제 2015-74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 2
지원대상		초등학생(1,2학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우선보호아동, 일반아동 등)	우선보호아동청소년(초등4~ 중2)
지원 시설 수	전국	12,380교실	4,113개소	250개소
	광주	150개교 286교실	309개소	6개소
수혜 아동	광주	85,649 (초, 등)	6,025명	8,065여명
				220명
지원형태		저소득층 및 교육비 지원대상 전액 지원 (그 외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전액 지원 (저소득 이외 아동은 프로그램비용 부담 가능)	지원형 : 전액지원 혼합형 : 수익자부담(50%) + 전액지원(50%)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85,649명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13,090명으로 전체 15.2% 임. 초등학생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방과후학교 등의 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가족이 직접돌보거나, 사교육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함.

■ 이런 상황에 따라 돌봄은 여전히 가정과 사교육으로 뭉으로 공백이 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 여전

- 돌봄의 사회화(가정 → 기관 → 마을돌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분절적 전개에 따른 서비스 중복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체계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사회적 방안이 필요함

- 지역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 (가칭: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함.
-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과 중복에 따른 연령별 특성화를 통한 각 기관별 서비스 유형 구분하여 제공하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 통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광주형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봅시다!

- 지속적인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내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을 활용 해 지자체 또는 마을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
-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커뮤니티 센터/마을회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개조
-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교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만12세 이하 지역아동 대상일시 긴급돌봄서비스와 방과후프로그램 등하원 등을 제공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해소」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 -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소 선정
- 기대효과
 - ▶ 돌봄사각지대해소/경력단절 및 출산포기 방지/돌봄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복원
 - ▶ 아파트 유휴공간 언제든지 돌봄나눔터
 - ▶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마을돌봄나눔터
 - ▶ 보건소를 활용한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사업

‘온종일 돌봄체계 -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사업내용

지자체	사업명	사업내용(안)
울산 북구	꿈나무 그루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 월~금 13~20시, 토 10~12시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현장학습, 부모·자녀프로그램 북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내 설치
경기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 월~금 13~19시, 방학중 종일 일시·긴급돌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안전 앱서비스, 간식제공 공무원 관사, 아파트 재건축단지내 커뮤니티센터 등
충북 청주시	언제든 돌봄 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세 이하 아동 / 월~금 9~22시 일시·긴급돌봄, 공휴일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커뮤니티 센터
충북 단양군	아이키움 온(溫)마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8세 이하 아동 / 화~토오후~21시 일시돌봄, 아동 15~20명당 온회원 지정하여 등하원 및 저녁도시락 지원 마을회관
충남 보령시	틈새돌봄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 월~금 13~21시 일시·긴급돌봄, 주중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용, 주말 현장학습, 간식제공 민간빌딩
충남 서천군	송아리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2세 아동 / 월~금 8~21시 일시·긴급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현장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귀가지원 등 여성문화센터내 1층
전북 익산시	토요일 및 야간 일시·긴급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세이하 영유아(맞벌이, 한부모) 월~금 18시~22시, 토 9시~18시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주간 일시·긴급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익산시 직영)
전남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2세 아동 / 월~금 13~21시, 토 9~13시 일시·긴급돌봄(퇴근시간, 방과후), 등하원 지원, 숙제지도 및 놀이교실 운영 여성문화회관 별관 교육실
경남 창녕군	또바기 돌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 월~금 16~19시 방과후 일시돌봄, 이미용·간식지원, 귀가지원, 아동 심리지원, 치아관리 등 경로당(마을회관 겸용)
경남 함양군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2세 아동 / 월~금 9~22시 일시·긴급돌봄, 학습지원, 보건서비스 등 함양군 보건소

3. 돌봄현장 점검 및 대안 마련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방과후돌봄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관간 ‘칸막이’ 현상이 있어 아동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워킹맘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 모두에게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방과후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또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일자리를 도입 하고 경력단절 들을 이유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활용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지역아동센터 309개소 중 종사자 총 700여명중 80% 이상이 여성임)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종사자), 초등돌봄전담사(초등돌봄교실) 등의 처우 개선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현장 중심
 - 20~29여명의 아이들을 2명(법적종사자)의 인력이 지원
 - 2명의 인력으로 보호(급간식), 교육, 문화, 자원연계, 아동관리등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 임신과 출산은 업무중단을 의미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월평균 급여 약 150만원, 하루평균 근무시간 8.8(시간),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서비스제공(보호, 교육, 문화, 복지, 아동관리, 가정지원 등) 평균 근속연수 약 2-3년
(출처: 2015,2016,2017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조사연구사업)

이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 할 수 있음.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제안(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 기존 돌봄기관 서비스 제고에 대한 공공성 및 기능강화
 - 공공 돌봄기관 확충
 - 존 돌봄기관을 자치구 관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동돌봄 거점센터 기능 확대 추진
 - 지역아동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사업(돌봄 공백 발생 시)
 - 공공급식 모형을 개발하여 돌봄기관 등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및 인력지원
- 대상자 연령(교급별) 및 특성(육구)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돌봄기관 특성에 따른 분야 프로그램 강사 파견사업
 - 장애아동·청소년 돌봄센터 설립
 - 집중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사 지원

지역사회 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종합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유관기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행인력 필요함

- 돌봄서비스 운영방식 다양화
 - 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돌봄이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보제공

부록 : 타방과 후 돌봄과 차별화된 지역아동센터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

(2016년 지원단 자체 조사연구사업-광주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아동 및 가족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운영경험을 중심으로(FGI 및 학부모면접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부모 모두의 복지시설)

▪ 학교 선생님하고 면담은 많이 부담스럽고, 선생님께 잘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데. 내 이미지에 따라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경 쓰이는데, 여기 센터장님은 언니 같아요. 제가 고민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는 분이라 많이 달라요(학부모 1).

▪ 사춘기가 미치겠어요. 학교도 안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학교를 안가는 이유가 “학원에서 다 배운 거야. 학원에서 다 배운 걸 학교에서 왜 다시 들어야 해.” 그래요.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아파서 학교 안간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하죠. 그런 걸 그렇다고 상의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나마 제 인생이 되었던 아이들 문제가 되었던 간에 유일하게 상담 하고, 의논할 데라고는 유일하게 센터장님 뿐이에요. 센터장님은 저한테 엄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해요. 모든 고민을 센터장님께 했어요. 편하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학부모 2).

▪ 저는 학교 생간다고 해도 지역아동센터예요. 학교에는 아무래도 교육목적이겠지요. 바이올린이든, 영어회화든 다 교육목적이겠지요. 여기는 교육목적도 있지만, 가정적인 분위기에요. 여기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여기는 집 같은 분위기로, 이모 집에 맡긴 것 같아요(학부모 3).

▪ 저희아이도 어린이집 다니면서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다니면서 인성이 바로 잡힌 것 같아요. 아이가 3살에 제가 혼자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로 가는 것. 그때는 방역 회사 다녀서 늦게 다니고, (아이가) 외로웠었어요. 아이는 막내라서 외롭게 유년시절을 보냈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기 와서 외로움 같은 게 많이 채워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사회성도 좋아지구요(학부모4).

(2017년 지원단 자체 조사연구사업- 광주지역아동센터 성과분석)

구분	범주화	주제화	구성된 의미
지역 아동 센터 기능	가족 기능 보완	돌봄을 받음	급식 간식이 잘 나옴 집 말고 갈 데가 있다는 게 좋음, 부모님이 맞벌이하셨으니까 부모님 안 계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생활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 집처럼 잘 돌봐줄 수 있는 곳 안다녔다면 배회했을 것 같음.
		물질적 지원	교복지원 장학재단 소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1인당 약기 제공 개인적 비용이 들지 않음 재료 지원 후원금 후원물품 제공 생필품 제공 크리스마스 선물받음
	의미있는 관계	공동체 생활	같이 활동, 부비부비하는 인간미, 여러 사람들끼리 친해짐 가족같은 분위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부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같이 함께 하나까 좋았음, 엄청난 형제들과 있는 것 같은 느낌 소속감
		종사자와의 관계	바르게 인도 존경심 솔직하게 애들을 대함 긍정적인 엄기처럼 포근한 느낌 따뜻함 잘 이끌어주심 미운정 고운정 세심하게 챙겨줌 편안함 친구같은 느낌
		친구와의 관계	서로 의지 상부상조 두루두루 친함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 우리들만의 경험을 공유 더 오래있어서 친밀
	다양한 경험	학습	수학 학습지 풀이, 국어 수업, 영어 수업, 학교에서 배운 것 복습, 외부선생님이 한국사 가르쳐주심, 영어와 일본어 배움, 과외, 과학기술원에서 봉사 오셔서 공부 알려줌, 전과목을 봐줌, 문제집 같이 풀기, 인문학 배움, 배움의 기회.
		프로그램 경험	사물놀이 배움, UCC 만들기, 심리상담, 약기 배움, 스포츠댄스, 미술활동, 방송댄스, 요리실습,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2의 학교, 새로운 경험 해볼 기회가 없던 것들을 경험
		체험활동	수영장, 워터파크 감, 연극, 뮤지컬, 영화보기, 스키장, 썰매장 감, 고구마캐기 체험, 방학 때 2-3회 놀러감. 일년에 1-2회 여행감, 단체로 놀러 가는 것. 동산에서 낙엽 채취, 영화 촬영 및 출연 경험, 제주도 한라산 등반, 크리스마스 트리, 스포츠 댄스 공연, F1 경기장 구경.
	구분	범주화	주제화
지역 아동 센터 효과	심리적 성장	정서적 안정	어루만져주심 유대감 형성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보살핌 친근함을 느낌 고민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어줌 따뜻한 말 제2의 집 같은 느낌 집처럼 편안
		자신감 향상	쉽게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음, 자랑할 수 있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음, 자존감이 높음, 또래보다 성숙하다고 생각.
		인성발달	인성이 바라진 것 같음, 성격적인 측면에 영향, 내

			성적인 성격이 활발하게 바뀐, 소심했는데 활발해짐, 남을 배려하고 이해함, 안빠떨어지고 사춘기를 보냄, 생각의 폭이 넓어짐, 일탈 실패, 한번 더 생각하는 행동, 더 밝고 긍정적이어짐, 나의 속을 단단하게 해줌, 방향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
		유년기의 즐거움	좋은 추억, 재미있었던 기억, 신났던 기분, 행복, 사랑 받음, 좋은 기억, 즐겁게 다닌 기억, 학교보다 더 재미있었음.
	교육적 효과	학업성적 유지 및 향상	선행학습 가능, 실제 성적에 도움, 배웠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기억, 학교공부에 도움, 수학성적 오름, 성적이 유지, 학교 등수가 오름, 성적이 향상, 공부하는 방법을 배움, 집중력 향상.
		문화적 소양 증진	지금도 활동적이고 여행을 좋아함, 악기를 지금도 다룸, 컴퓨터 활용, 댄스부 활동.
		적성 및 진로 탐색	진로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줌, 흥미있는게 많아짐, 오빠에게 일자리를 알려줌, 재능을 발견하고 상도 탐, 여러 가지 꿈에 대해 생각, 적성 및 진로에 대해 고민, 아이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
	지역 아동 센터 효과	사회성 발달	대인관계 능력 발달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새로운 친구 생김, 다양한 연령대를 만날 기회, 인맥이 넓어짐, 왕따 경험을 극복, 지금도 연락, 학교친구들이 많아짐, 지금의 인연이 지역아동센터의 인연, 지역아동센터 언니들이 보호해줌.
규칙 습득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됨, 규칙을 배우는 곳으로 효과적, 지킬건 지키고, 트러블이 있을 때 대화로 개입, 나쁜 감정이 들 때 선생님께 표현, 솔직히 말해야 함을 배움,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움.
가족지원 효과		일상생활능력 향상	문제상황에 바로 개입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줌, 가정교육 같은 것도 해주심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다해서 좋음, 기본 예절같은 것을 배움.
		가족관계 개선	나를 덜 챙겨도 돼서 엄마도 편함, 지역아동센터에 있었던 일로 대화할 거리가 생김, 아빠랑 선생님이랑 전화하면서 아빠와 관계가 개선됨, 가출하고 나서 원장선생님덕분에 집에 들어옴, 엄마와 오빠랑 상담프로그램

			참여하게 돼서 관계가 좋아짐, 사랑하는 방법을 배움, 여동생한테 더 잘해주게 됨, 가족의 좋은 추억이 생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편해 하심.
		경제적 효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대안이 됨, 학원대신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 교복지원으로 엄마가 경제적으로 덜 힘들어하심.
	지역사회 자원 확보	봉사활동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 나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 약기 봉사활동 경험, 봉사활동을 해 봐서 봉사하기가 훨씬 쉬움, 지역아동센터 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음.
구분	범주화	주제화	구성된 의미
이용자로서의 제언	지역아동 센터 필요성	지역사회에 필요	맞벌이 부모대신 돌보고 케어, 부모님도 마음놓고 아이를 맡김, 못한 경험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음, 보호도 되고 배우게 되고, 경제적으로 학원 못가는 애들에게 도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 아이들이 덜 외로움.
	지역 아동 센터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적극적인 지지 필요, 정부지원 필요, 지원이 많아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거에 비해 돈을 적게 받음, 종사자들이 더 편하게 일하도록 지원필요, 자금같은거 걱정안하게 지원.
		이미지 개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부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적극적인 홍보 필요, 지역아동센터란 표현을 안쓰고 공부방이라고 말함, 낙인감 경험, 지역아동센터 존재를 알게 해야 함.
		환경적 측면 개선	외부적인 시설이 좋아졌으면, 보수가 잘되었으면, 차량운행을 했으면 좋겠음, 외부적인 시설이 좋았으면 좋겠음, 중학생만의 공간이 필요, 보건실 같은 공간 필요, 접근성을 좋게 해야 함.
		종사자 측면 개선	자원봉사보다는 선생님들을 고용하면 좋겠음, 선생님 수가 애들에 비해 적음, 심리전문가 필요, 교육이 가능한 선생님 필요, 외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으면 좋겠음, 종사자 월급 지원, 종사자의 외부활동 및 잡업무 축소.
		이용자 측면 개선	돈내고 다니는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 아이들의 홍보도 필요.
		프로그램 개선	학습적인 측면 활성화 필요, 프로그램을 길게 하면 좋겠음,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필요, 학습 분위기 형성, 연령별 프로그램 제공, 자유시간 바람,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지정토론

토론자

임 걸

광주광역시활센터 사무국장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임 걸(광주광역시활센터)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사례와 확장된 제안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사회적경제란 “신 자유적(neo-liberalism)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와 실업문제, 저 성장에 따른 복지재정의 한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 되었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빈곤문제, 실업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소하려는 사회 및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노대명, 2015).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경제조직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국외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조직형태와 실질적인 운영규칙을 명시하는 반면, 국내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목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장원봉, 2006; 신명호, 2009).

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서는 생태계 구축과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에 대한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진출분야 확대)**에서는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하는데 있다.

발제자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와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선순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로 지역자원과 수요를 결합하여 공동체 기반의 생활방식이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해 선순환자원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성과 개방성, 선택지 확장 및 실험적 도전, 사회적경제 인프라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하며, 부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 토론회의 의도가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는 저임금, 고용안정의 불안정성 등을 노출시키는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노동시장에서) 성공적 사례가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발제자께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회서비스 현황과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의 수렴, 서비스 공급기관의 조직전환가능성(사회적 협동조합),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회서비스 현황에서는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61%)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장기요양 0.5%, 보육 0.1% 등).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개정하여 재 발의를 하고 사회서비스(3섹터)의 관계 설정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전환을 위해 진입장벽 해소, 바우처 활성화, 지역복지,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유연한 지정요건 적용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바우처 평가체계 개편이다. 즉, 소비자에 의한 서비스 품질평가 제공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수시 평가정보 제공이다.

셋째,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즉,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사업비, 컨설팅 지원 및 행정지원)하여 효과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